

자치회비 50% 이상 반환, 양 캠퍼스 총학생회 반응 엇갈려

국제캠 “등록금 재논의 요구하며 자치회비 재논의 않는 것 모순”
서울캠 “학교 측과 학생자치기구 같은 선상에 놓기 어려워”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자치기구가 전체 자치회비의 50% 이상을 돌려준다. 국제캠 총학생회(총학) 양성민(원자력공학 2015) 회장은 지난달 16일 진행한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자치회비 중 최소 50% 이상을 반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치회비는 총학, 동아리 연합회, 응원단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복지사업 및 공약이행, 행사 등의 학생자치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이다.

이날 양 회장은 “학교 측에 등록금

에 관한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자치회비 운용에 관한 재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판단했다”며 자치회비 반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캠의 2020학년도 1학기 오프라인 행사를 전면 연기했다”며 “이에 최소한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예비비를 제외한 50%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학생자치기구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13일 국제캠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자치회비 반환 진행에 대한 최종안’으로 의결돼 국제캠 학생

자치기구 대표단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자치회비 반환은 1학기 예결산이 끝나고 올해 8~9월 중 일괄 시행될 예정이다. 금액은 자치회비의 50%인 4,750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0학년도 1학기 자치회비 납부자들 각자가 구글폼 링크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도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서울캠 학생자치기구 측은 사실상 자치회비 반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놴다. 서울캠 최원성(생물학 2016) 총학생회장은 “SNS상의 여론만으로 자치회비 반환을 결정하는 것은 선부르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학우 분들의 공식 요청, 요구가 모이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죽

제나 간식 사업 등의 행사 부채를 이유로 자치회비를 반환하는 것은 무리”라며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한 만큼 각 단위에서 학생자치를 위해 필요한 행사 등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등록금과 자치회비의 관계에 대한 양 캠퍼스의 시각차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제캠 총학은 등록금 재논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회비 운용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서울캠 총학은 지난달 27일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등록금은 대학에 내는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이고, 자치회비는 자치조합 활동에 대한 지지로서 모인 활동금”이라며 “학교 측과 학생 간의 관계와 학생자치기구와 학생 간의

관계를 같은 선상에 놓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예년과 같은 자치회비 사용은 오프라인 행사 취소로 집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결산 공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전반기 동안 시행된 바 있는 축제, 시험 기간 간식 사업 등은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두 취소된 상황이다.

또 “예산과 사업계획을 별도로 확대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및 의결을 받았으며, 매달 결산을 공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교육과 자치활동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자치회비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기동 임대료 인하 캠페인 시작 ‘동참해주실래요?’

이지민 기자 delicado@khu.ac.kr

청년 중심 지역사회단체인 ‘회기동 사람들’과 ‘이문모아’, 그리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가 회기동 임대료 인하를 위한 ‘우리동네 사장님 파이팅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달 20일 서울캠 정문 앞에 ‘우리동네 사장님 파이팅 캠페인’ 현수막이 설치됐다. ‘동참해주실래요?’라는 멘트가 적힌 현수막에는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장 및 배달이 가능한 가게들을 지도로 제작하는 포장 배달지도 만들기 활동도 진행한다. 상점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도 계획 중에 있다.

해당 캠페인을 제안한 후마니타스 칼리지 우대식 교수는 “주변 상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고 캠페인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우리동네 사장님 파이팅 캠페인’이라는 명칭에 대해선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에 맞게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캠페인이 임대료 인하와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실제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관계의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회기동 사람들’과 ‘이문모아’는 캠페인 시작에 앞서 서울캠 총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학생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 바 있다. 현재는 지리학과, 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 조리산업학과 등 약 15명의 재학생이 주축이 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임창민(언론정보학 2014) 씨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주고객인 우리학교 일대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러한 생각과 캠페인의 취지가 잘 맞아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배달지도 제작을 위해 방문한 가게의 사장님들이 반겨주셔서 기분이 좋았다”며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같이 힘을 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타 학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한창이다. 지난 8일 교내 임점 업체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 또는 면제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경기대와 인하대, 한국해양대, 한양대 등이다. 해당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 장기화로 대학생 손님이 줄어 매출 부진을 겪는 업체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 ‘동참해주실래요?’라는 멘트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사진=이지민 기자)

